

은밀하고 위대한 선물 '고려인삼'

인문학적 역사·과학적 효능 정리



은밀하고 위대한 인삼이야기

옥순종 지음

'인삼'은 한류의 기원으로 일컬을 정도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약재다. 그러나 정작 많은 이들은 '인삼은 몸에 좋은 것'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

국가 대표 브랜드로 손색이 없는 인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출간됐다.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옥순종 겸임교수가 펴낸 '은밀하고 위대한 인삼이야기'는 인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폭넓고 깊은 연구를 통해 인문학적 역사와 과학적 효능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저자에 따르면 인삼은 수만 년 전부터 한반도의 심산유곡에서 생산된 약재였다. 국가에서 전매를 할 정도로 국가 경제의 한 축을 구성하는 중요한 자산이며 대표 브랜드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와인이나 커피를 모르면 교양인이 아닌 것처럼 부끄러워하면서도 우리 인삼을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책에는 인삼의 기원에서부터 인삼과 관련된 역사적 일화, 세계인들은 인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인삼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정말 궁금한 인삼 상식에 관한 Q & A'도 부록으로 수록돼 있어 평소 애용했던 인삼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게 했다.

특히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삼 이야기는 역사 바로 세우기가 화두인 요즘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립운동을 지원한 인삼 상인, 안중근의 인삼 인연, 일제 강점기 시절 인삼을 둘러싼 수난과 중국의 역사를 바꾼 인삼 이야기는 왜 '신의 선물'인 인삼이 소중한 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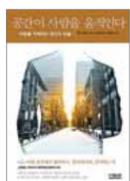
최근 인삼업계에서 고려인삼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고려 인삼이 천연 건강식품으로서 세계적인 자원이라는 데 동의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

"우리 민족과 인삼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은한 인삼의 향기가 우리 역사와 문화 곳곳에 묻어 있다. 국가 재정에 기여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백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인삼은 '은밀하고 위대한' 선물이다."

<이가서·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간은 건축 통해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나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

콜린 엘러트 지음

"사람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공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는 상식적인 믿음은 여러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 과제였다. 인간은 어떻게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을 만들었는지, 그 두 공간은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

공간의 영향력을 탐구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을 담은 책은 출간됐다. 워털루대학교 인지신경과학자이자 도시현실연구소 소장인 콜린 엘러트가 펴낸 '공간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마음을 지배하는 공간의 비밀을 조망한다.

저자는 '신경건축학'이라는 렌즈를 토대로 공간과 건축, 인간의 몸과 마음을 세

밀하게 측정하고 들여다본다. 사실 공간의 힘에 관한 연구는 1970년대부터 싹을 틔워 2004년 미국에서 '신경건축학회'가 발족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저자가 인간의 감정 중 가장 먼저 주체로 삼은 것은 '사랑'이다. 설치미술가 필립 버틀리의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출품작 '물활론의 땅' 연작의 묘사를 시작으로 인간의 물물론적 성향(사물성애자), 인간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가상현실에 주목한다. 또한 '사고 싶은 집'과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이 다르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며 어떤 집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분석 사례 등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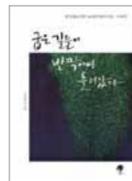
사실 집은 인간의 애정이 가장 극명하고 자유롭게 드러나는 공간이다. 저자는 몸바이의 척박한 빈민가에서도 사람들은 집을 개인화함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데 주목한다. 나아가 멜버른왕립공과대학의 디자인허브, MIT미디어 연구소의 '시티홈' 프로젝트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미래의 '반응형주택설계'의 전망을 보여준다. <더퀘스트·1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목청껏 불리도 대답없는... 아! 그리운 아버지

굽은 길들이 반짝이며 흘러갔다

고두현 외 지음



"바람의 세월이 흘렀다. 아버지와 나의 서사(敍事)는 지금도 겹쳐지고 있다. 같은 종점을 가고 있다. 아버지가 저만큼 앞서 있다." (오민석 '풍장(風葬)'의 시작목에 중에서)

아버지에 대한 단상은 각기 다르다. '아버지', '부친', '아빠' 등 부르는 호칭도 저마다 다르다. 그러나 아버지를 통해 생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하다. 아버지는 피와 살과 뼈를 나눠준 존재다.

전통적인 가족제도 하에서 아버지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가족제도가 붕괴되고 1인가구가 대세가 돼버린 요즘, 아버지의 권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축됐다.

눈 감고 생각하면 그리운 이가 바로 아버지다. 아버지를 소재로 한 시를 묶은 시집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고두현, 정호승 등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 49인이 쓴 테마시집 '굽은 길들이 반짝이며 흘러갔다'는 오롯이 아버지에 초점을 맞춘다. 시집은 지난해 한국대표시인 49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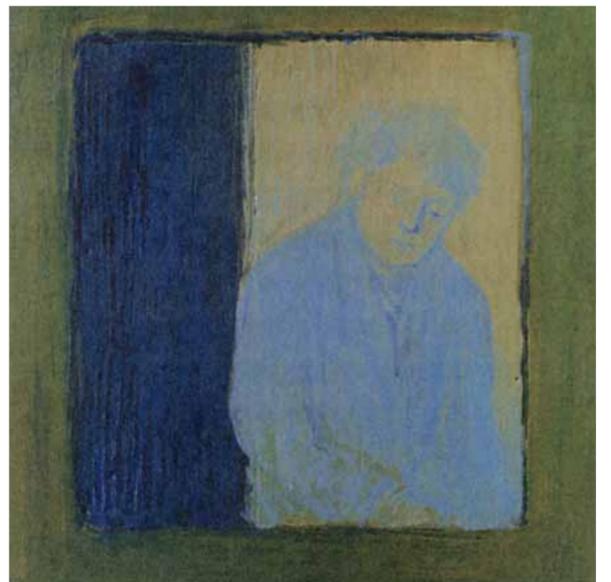
'어머니'를 주제로 쓴 시를 묶은 '흐느끼던 밤을 기억하네'와 짝을 이룬다. 참여한 시인들은 원로 시인에서 현재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중견 시인, 등단 10년 안팎의 젊은 시인까지 다양하다. 특이한 점은 모두 남성 시인들로만 구성됐다는 점이다.

작품집에는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초상, 아버지로서 아들로 이어지는 삶의 내력, 시대와 가족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49편의 시는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원망과 자책으로 아버지를 노래한다. 뿐만 아니라 삶을 비추는 빛과 위안의 대상으로 아버지를 부른다.

1부 '사라진 별뿔뿔처럼'은 지금은 부재하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는 시들로 엮여 있다. 고진하 시인은 '사라진 별뿔뿔처럼'에서 이렇게 묘사한다. "흙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던 그 매장의 기억 만큼/ 강렬한 경험은 아직 없지"만 "저 하늘 심연으로 사라진 별뿔뿔처럼/ 당신에 대한 기억조차 가물가물거리는 지금"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묻는다.

최준 시인은 '속죄'라는 화자를 통해 "나 어려서, 너무 어려서/ 읽어내지 못한 (아버지의) 내력"들이 사무처 "아이처럼 었드려" 울었다고 고백한다. 배한봉 시인은 '대답이 없다'에서 아버지는 "목청껏 불리도 대답이 없"다고 노래했으며 이은봉 시인은 '참 많은 세월 흘렀어도'에서 거울을 보면 "아버지 얼굴을 한/ 웬 중늙은이가 서 있"을 뿐이라고 자책한다.

그럼에도 시인들은 어느새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아버지와 불화했지만 이제 아버지의 길을 걷고



한국 대표시인 49인의 '아버지'를 테마로 한 시집 '굽은 길들이 반짝이며 흘러갔다'에는 아버지에 대한 다양한 단상과 이미지들이 담겨 있다. <나무열의자 제공>

있다는 것을 고백한다.

한편으로 시집에는 아버지에게 삶의 길을 묻는 시들도 담겨 있다. 한 생을 몇 몇하게 살아온 아버지에게 존경을 보내며 아울러 삶의 지혜와 방향을 구한다.

이진우 시인은 '애비는 잡초다'에서 "너희가 달뻐졌다 늘 비웃는 우리가 네 아비고 내일의 너희다"라며 "우리가 바로 온 지구를 뒤덮은 잡초/ 너희를 품어줄 거대한 무덤이다"라고 선언한다. 정일근 시인은 '아아아, 아버지'에서 "거

침고 딱딱한 어둡뿌인 행성일 때, 아버지라 불려/ 어둠의 표피에 눈을 달고 빛을 볼 수 있었다"고 밝힌다.

이처럼 시속의 아버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그리고 아프며 막막하고 파스한 사연들로 채워져 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이 아버지가 걸어갈 길과 겹쳐진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장구한 세월은 계속된다.

<나무열의자·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파이들의 암호로 본 현대인의 고루한 삶



고요한 밤의 눈

박주영 지음

제6회 혼불문학상 수상작 '고요한 밤의 눈'이 출간됐다. 최명희 작가의 문학 정진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2011년에 제정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혼불문학상은 그동안 다채롭고 혁신적인 작품들을 배출했다. 올해 수상작에 선정된 박주영의 '고요한 밤의 눈'은 "스파이 소설이면서 스파이 소설이 아니며, 스파이들의

암약"을 다루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고루하고 절망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소설은 어떤 기록에도 올라 있지 않은 일관성 뒤편에 동성 D가 실종된 정신과 의사인 언니를 찾아 나선다는 내용이다. 남자 X는 15년의 기억을 잃은 채 병원에서 깨어나 누군가 알려주는 그대로 스파이의 삶을 살지만 어느 날 그 기억을 잊어버린다.

작품은 한마디로 감시 사회나 다름없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고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주요 등장인물들의 동선과 퍼즐처럼 널려 있는 조각들을 맞추다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도달하게 된다. <다산책방·1만38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4차 산업혁명,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다



4차 산업혁명 앞으로 5년

이경주 지음

2020년,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질 4차 산업 혁명의 시발점. 3차 산업혁명에서 기회를 잡아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이번에도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삼성 정보통신 부문에서 30년 동안 전략과 기획을 담당하며 늘 5년, 10년 앞을 내다본던 저자 이경주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준비한 대중 입문서 '4차 산업

혁명, 앞으로 5년'을 펴냈다.

1, 2차 산업혁명에서 뒤졌던 우리나라는 3차 산업 디지털 혁명에서 앞서며 일 본을 추월하고 세계적인 통신 강국, 휴대폰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에서는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제는 다음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다. 책은 관련 업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알기 쉽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영역을 저자 나름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비즈니스 현장의 이야기와 선점을 위한 경쟁국들의 이야기, 알기 쉬운 사례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영역이 더욱 쉽게 다가오게 했다. <마리북스·1만6000원>

/이보림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0) 대신프리모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 · 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뷰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1,100만원~내집마련)

2억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중소형 (구)26평 / (구)30평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분양문의 351-4610 (062)

모텔하우스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44-2-2 농성역 7번 출입구 밀려메시 빌딩

(주)유탑디앤씨 · (주)유탑건설 · (주)유탑